“대행선 대중화, 용어보단 구조적 접근을”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주장

대행 선사, 불교를 ‘진리’로써 이해
‘비유의 언어’ 사용해 대중에 법문
“용어 매달리기보다 구조 파악해야”
대행선 대중화 방편에 교육기관 제안
공적제도 통해 일반학문과 연계 가능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3월 15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열린 대행선연구원 제22회 계절발표회에서 ‘구조로 보는 대행선: 대행선의 대중화를 위한 시론’을 발표하고 있다.

안양=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전했던 대행선(大行禪)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 불교 용어 중심의 이해를 벗어나 ‘구조’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시도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3월 15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열린 대행선연구원 제22회 계절발표회에서 발표한 ‘구조로 보는 대행선: 대행선의 대중화를 위한 시론’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용어보다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로, 불교 용어만으로 불교를 이해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꼽았다. 실제 불교 용어는 포괄하는 범위가 제한적이지 않고, 다른 용어로도 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일상 언어로 법을 설했던 대행 선사의 경우 이 같은 부분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게 최 연구원의 설명이다.

“아프면 의사가 필요하고, 죽을 때는 지장이 필요하고, 죽는 걸 살릴 때는 칠성이 필요하고, 산에는 산신이 필요하고, 물에는 해신이 필요하듯이, 각각 소임을 맡아서 하는 종류가 여기 쫙 붙어 있단 말이에요.” **(〈허공을 걷는 길〉 ‘참나의 줄을 잡고’ 중)**

위의 법문을 인용한 최 연구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중생교화를 응병여약(應病與藥)이라고 하듯 교화의 방식은 부처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중생이 필요한 모습으로 나투는 것뿐”이라며 “결국 본래 부처님 ‘내 속에 약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관음도 있고, 지장도 있고, 보현도 있고, 법신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뭐든지 여기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행 선사의 법문에서 표현되는 용어에 걸리면 안 된다”면서 “세상에 필요한 모습으로 나투고 있는 것에 이런저런 이름을 붙일 뿐, 근본은 세상이 있는 모든 것이 부처라는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법문을 이해할 때 용어가 아닌 구조에 집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 선사가 사용한 ‘비유의 언어’를 꼽았다.

최 연구원은 ‘불성’이라는 일반 불교 용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진 대행 선사 고유의 비유인 ‘주인공(主人空)’을 예로 들었다. 그는 “비유어를 사용하면 그 비유어의 원래 의미에 맞춰 설명이 확장돼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대행 선사는) 불성의 다른 표현인 ‘주인공’이라는 개념어를 대중미디어의 주인공과 동치시킴으로써 불성이 우리 삶의 핵심임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원섭 연구원

이어 “대행선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가 아닌 구조를 살펴야 한다”면서 “대행 선사는 불교 용어도 재해석해 자유롭게 구사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용어 역시 다양하고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용어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맥락을 참고한 구조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행 선사의 설법은 용어나 개념보다는 구조 위주여서 탈종교 시대에 적합한 전법 방식의 표준을 이미 제시”하고 있음을 밝힌 최 연구원은 일반 대중에게 대행선을 전하는 방편으로 교육시스템과 선법가를 꼽았다.

최 연구원은 대행선연구원이 지난해 6월 영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마음학교’ 설립 계획을 소개했다. 대행선연구원은 ‘대행선연구원의 발걸음과 미래: 불은 생명이요, 교는 생활이다’라는 영상을 통해 △한마음 법을 이론·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한마음생활과’ △대행 선사 선법가 이론과 실수를 위한 ‘실용음악학과’ △시대에 맞춰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전달·연구하기 위한 ‘응용 IT콘텐츠학과’를 포함한 ‘마음학교’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최 연구원은 “대행선을 대중화하는 교육기관이라고 해도 대행선만을 전면에 내세울 수는 없다”면서 “일반 학문과 연계해 나아가 일반학문의 언어와 사유구조로도 전달할 수 있도록 대행선의 구조를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시스템이 갖춰지면 자체적으로 체계적인 대행선 관련 교육을 통해 학위논문을 배출될 수 있다. 이는 대행선 연구가 깊어지는 동시에 연계 연구를 통한 연구 분야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학교 부설연구소와 산학협력단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하는 각종 연구지원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돼 많은 연구자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연구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선법가’를 통한 대행선 대중화에 대해 최 연구원은 “대중미디어를 통해 종교색이 짙지 않는 방식으로 대중에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대행 선사의 구조 설법 방식이 온전히 담겨 있는 선법가를 좀 더 대중적으로 수용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대행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용어 중심이 아닌 구조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리해야 교육과 미디어를 통해 일반 대중이 대행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미 대행 선사는 용어에 얽매이지 않는 법문을 통해 그러한 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계절발표회에서 앞서 봉행된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대행 선사는 ‘일상 생활이 다 진리고, 과학’이라고 하시며 선사의 법문에는 과학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았다”면서 “대행 선사의 법문이 대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행선연구원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연구원의 표어가 대행 선사가 설하신 ‘불은 생명, 교는 생활’인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술연구만으로는 제한적이다. 일반인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연구원의 학술지 〈한마음연구〉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가 됐다”면서 “등재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계절발표회, 학술대회 등을 통해 양질의 논문들 발굴·게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강] 현대물리학으로 보는 불교

공이며 공이 아닌 자리가 ‘중도’

현대물리학이 옳다면, 세상은 거의 완벽하게 비어있는 공간이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주변의 물체나 우리 몸도 비어있는 공간이다. 새가 날아가는 허공만 허공이 아니라 모두가 다 허공이다. 세상이 온통 비어있다는 이런 설명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감각 경험과 상당히 다르다. 우리 몸이 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벽이 무언가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한다. 감각 경험을 통한 이런 판단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유용하다.

우리에게 바닷물은 짜고 설탕물은 달다. 그러면 바닷물은 짠가? 아니다. 설탕물은 단가? 그것도 아니다. 어느 것도 짜거나 단 것이 아니고, 짜지 않거나 달지 않은 것도 아니다. 다만, 물에 소금과 설탕이 들어있을 뿐이다. 우리에겐 소금이 짠맛을 주고, 설탕이 단맛을 주지만, 고등어가 짜다고 하지 않는 소금에 짜다는 실체가 있을 수 없고 고양이가 달다고 하지 않는 설탕에 달다는 실체가 있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짜거나 단 결정적이고 변하지 않는 자신의 본질(essence) 즉 자성(自性)을 어느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자성이 없어서 무자성(無自性)이고, 실체가 없어서 무아(無我)다.

연기(緣起)는 무아와 무자성의 연기다. 일체의 모든 것이 무아고 무자성이어서 어떤 인연이 맺어지느냐에 따라 끝없는 무진(無盡) 세계가 나타난다. 끝없는 세계가 나타나더라도 연기는 무아이고 무자성이어서 공(空)이다. 연기이므로 공이다.

우리는 우리 감각이 느끼는 그대로의 외부 세계가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꽉 차 있어서 딱딱하다고 느끼는 책상은 텅 빈 공간이고, 나에게 들리는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고, 사과의 빨간 빛은 전자기파일 뿐이다. 그 모두는 우리의 마음이 그려낸 것이다.

우리가 보는 세계 곧 세간世間은 내 몸 밖에 있는 실제의 세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대승기신론〉에서는 “세간의 모든 경계가 중생의 무명으로 인한 허망한 마음에 의해 머물므로 일체의 존재는 거울 속의 영상과 같아서 실체를 찾을 수 없다. 마음에 의해 생긴 허망한 것일 뿐이어서, 마음이 생기면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心生則種種法生) 마음이 없어지면 가지가지 법도 없어진다(心滅則種種法滅)”고 하였다.

우리 마음은 그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그건 능숙한 화가가 그려내는 가상현실이다. 일체의 객관세계가 모두 무자성이고 무아다. 객관세계를 나에게 드러내는 연기가 있을 뿐이다. 내가 보는 세계, 내가 사는 세계는 세계 자체가 아니라 무아의 연기에 의해 나에게 나타나는 세계다.

의상 스님은 ‘법성게(法性揭)’에서 “참된 성품은 아주 깊고 지극히 미묘하니(眞性甚深極微妙), 자성을 지키지 않고 연(緣)을 따라 이룬다(不守自性隨緣成)”고 했다.

연기하므로 공(空)이어서 색즉시공(色卽是空)이지만, 색즉시공의 바로 그 자리에서 우주 전체가 드러나니 이게 공즉시색(空卽是色)이다. 공즉시색이란 진공묘유(眞空妙有)가 연기의 기적이다. 공이지만 공의 바로 그 자리에서 구름이 흘러가고 파도가 친다. 공이 아니면, 구름이 흘러가지 못하고 파도가 치지 못한다. 참으로 공이어서 구름이 흘러가고 파도가 친다.

색즉시공인 바로 그 자리가 공즉시색이어서 중도(中道)가 된다.

그러면 일체가 다 중도가 된다. 연기가 중도고, 색즉시공이 중도고, 공즉시색이 중도고, 진공묘유가 중도다.

컵을 밀어야 컵이 움직이므로 관성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듯이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관성의 법칙이 성립한다. 연기에 의해 온갖 법이 나타나서 도저히 공이라고 보이지 않는 현상의 그 자리가 바로 공이다. 공의 그 자리에서 갖가지의 법이 나타나는 진성수연(眞性隨緣)의 공즉시색이다.



양형진
고려대 명예교수

중국 운강석굴,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5월16일 출발~5월20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일정 : 5월16일~5월25일
▶ 동참금 : 349만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삼사 순례
(화엄사-수월정사-천년고찰 광우사)
출발일정 : 7월01일~7월05일(5일간)
인천-연길(화엄사,수월정사)-백두산 천지-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등)-요양(천년고찰 광우사)-인천
▶ 동참금 : 160만원

부탄, 네팔 성지순례 8일
히말라야의 불교왕국 부탄, 네팔 카트만두 순례
출발일 : 5월17일~24일(6박8일)
▶ 동참금 : 439만원

중앙아시아 4개국 완전일주 13일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일정 : 6월03일~6월15일(11박13일)
▶ 동참금 : 문의

티베트 순례 7일
라싸-간체-시가체-삼예 등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출발일정 : 6월28일~7월04일(7일간)
▶ 동참금 : 299만원

티베트 카일라스(수미산) 순례 16일
카일라스(수미산)는 성스러운 영감의 근원을 찾아서 순례하는 성산입니다.
출발일정 : 6월07일~6월22일(16일간)
▶ 동참금 : 560만원


카일라스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https://maumtour.com/